

숙성 흥어에 명품 한우 맛보자…남도 미식 대향연

나주 영산포 흥어·한우 축제 23~25일 시민체육공원에서 개최

4만2000평 꽃양귀비 환상적 풍경 속서 풍성한 먹거리 잔치

600년 전통을 이어온 삽힘의 미학, 남도 잔칫상 대표 음식인 숙성 흥어와 명품 나주 한우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풍성한 먹거리 축제가 나주 영산포에서 펼쳐진다.

'제21회 영산포 흥어·한우 축제'가 23일부터 25 일까지 3일간 영산포둔지 시민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영산포 흥어 축제는 나주 지역 최장수 음식문화축제다. 올해부터 영산포 흥어·한우축제로 명칭을 변경했다.

나주시가 이번 흥어축제 개최 시기에 맞춰 14만㎡(약 4만2000평) 규모로 조성했다.

축제 현장인 영산강 둑지공원 인근엔 붉은 치마를 두른 꽃양귀비가 만개해 절정을 이루며 연일 관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붉은색 꽃양

귀비와 꽃 사이사이를 수놓은 하얀 안개초가 어우러지며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주차는 영산강둔지 시민체육공원과 인근 주차장, 도로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영산포 인근 흥어의 거리 상가를 방문하면 할인된 가격에 숙성 흥어를 맛볼 수 있다.

노안 정고집, 다도 참주기를 비롯해 숙성 흥어와 쌀떡궁합인 남도 막걸리 10여 종을 맛볼 수 있는 전시·시음 부스도 운영해 미식·애주가들의 입맛을 자극한다.

회뿐만 아니라 짬, 전, 무침, 흥어 간을 끓인 애국, 막걸리를 곁든 흥탁 등 침샘을 자극하는 흥어 요리를 종류별로 느낄 수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흥어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최대 축산업 중심지인

나주의 명품 한우도 맛볼 수 있다.

시는 영평군 1만5000여 한우가 거래되는 영산포 우(牛)시장이 자리한 지역 특성을 살려 이번 축제에 1등급 한우 상설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30% 할인된 가격에 나주 한우를 구매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축제 분위기를 한층 띠후줄 초대가수 공연도 기대를 모운다. 미스터트롯 장민호와 혜녀 가수 혜숙을 비롯해 현진우, 차효린, 이청아 등이 영산강을 배경으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마지막 날인 25일 밤엔 영산강 밤하늘을 수놓을 불꽃 쇼도 예정돼있다.

운행체 나주시장은 "더 새로워진 나주 영산포 흥어·한우축제에 전국 미식가·여러분을 환영한다"라며 "3일간 숙성 흥어, 한우 등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재미있는 볼거리, 즐길 거리로 소중한 추억을 남겨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군·상하이 천일무역, 100만 달러 농특산품 수출 MOU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70여 개국 바이어 수출상담

함평군이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SIAL Shanghai)'에 참가해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공략에 속도를 낸다.

함평군은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에서 현지 유통기업인 상하이천일무역유한공사와 지난 19일 100만 달러 규모의 농특산품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협약을 통해 함평군은 조미김, 분말식초 등 지역 농특산 기공품의 중국 수출 기반을 확보했다.

특히,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중국 시장 특성을 반영해 수출 품목을 구성했으며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박람회에서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방문한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시식 행사와 제품 시연 등 함평 농산물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수출 상담도 진행했다.

협약식 자리에서 상하이천일무역유한공사 관계자는 "함평산 조미김과 농특산기공품은 품질과 맛 모두 경쟁력이 뛰어나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군 관계자는 "상하이 식품박람회는 세계 식



품 트렌드를 읽고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탄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함평 농산물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과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군, 친환경 유기농쌀 미국 2차 수출길

친환경농업협회 '바라미쌀' 1월 10t 이어 2차 10t 상차식



장흥군은 지난 20일 용두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미국 수출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쌀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올해 들어 두번째로 미국 수출길 오른 '바라미 쌀'은 장흥군친환경농업협회(회장 권영식) 작목반에서 생산했다.

수출 계약물량은 총 20t으로 지난 1월 10t에 이어 2차로 10t를 수출해 미국 LA 지역 마트에 공급된다.

장흥군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4월 장흥군 농수산식품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참여하여 미국 바이어와 1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기농쌀 수출을 늘려가고 있다.

장흥군은 지역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 생산자, 제조·가공업체, 수출업체에 대해 각 kg당 190원에서 3900원까지 품목별 차등단가를 적용하여 수출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수출경쟁력이 높은 유기농쌀 등을 수출 특화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 직불금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 1학기 대학생 등록금 최대 200만원 지원

다음달 13일까지 신청 접수

장성군이 올해 1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장성지역 대학생 1명 당 학기별 최대 200만원, 누적 8학기까지 등록금 일부부담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 등을 제외한 본인 부담 등록금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보호자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2022년 5월 15일 이전 전입) 장성군에 주민등록 ▲직전학기 1학점 이상 이수, 평균 C학점 이상

취득 ▲30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 국내 대학 재학생이다. 2025년도 1학기분 국가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한 이력이 있어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기간은 오는 6월 13일까지다.

장성군은 지원 요건 확인 등 절차를 거쳐, 국가교내장학금이 확정되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장성군 문화교육과 교육지원팀(061-390-85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장성지역 대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복지 혜택을 꾸준히 확대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원(오른쪽 두번째) 강진군수가 화재 피해 주민을 방문해 위로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화재 지원 조례' 최초 지원금 지급

강진군이 최근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강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최초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강진군은 지난 3월 관내에서 발생한 주택과 축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총 1200만원을 지급했다. 피해 규모는 소방서 화재증명원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조례에서 정한 지원 기준에 따라 500만원과 700만원을 지급됐다.

강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지난해 10월 제정됐다.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 화재, 폭발, 불고 등 재난으로 주거시설은 물론 농·수·축·임산물 등의 생계 기반 시설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피해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거나 고의나 과실, 빙집, 불법건축물에 대한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진군은 최근 조례 시행에 따라 첫 번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화재 피해 주민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위로를 전하며 일상으로의 회복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피해 주민은 "화재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빠른 지원이 큰 위로가 됐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앞으로도 피해자 처지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화재로 피해를 당한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과 첫 지급 사례를 계기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좀처럼 복지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